

# 민주 “흑색선전 난무” vs 국힘 “개헌 저지선 필요”

### 이재명 “선거 막판 각종 위법 행위들 횡행”

### 윤재옥 “국민 회초리, 쇠몽둥이 되면 안돼”

4·10 총선을 단 이틀만 남겨 놓은 8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각종 흑색선전 가능성에 경고등을 켜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을 달라”며 읍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니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이용해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특히 카톡 메시지 등을 활용한 대량의 허위사실 유포, 음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고 체제를 갖추고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막판에 각종 선거법 위반에 불법 행위들이 횡행한다”며 “대통령부터 관련 불법 선거로 의심되는 전국 순회 행위를 수습 차례 반복했다”

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오늘 아침에도 쥐은 거고 현장에서 유세할 때마다 겪는 일인데 정말로 시비를 많이 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말하기도 수치스러운 정도로 저열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 역시 정말 대한민국의 중립적인 선관위가 맞는지 싶은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며 “대과가 그렇고, 숫자놀음이 그렇고, 도저히 민주적인 대한민국 맞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에 확인된 투표권자, 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행위 현상이 포착됐다”며 “선관위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즉각적인 강력한 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치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의 회초리를 달게 받겠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일 잘라라고 때리는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돼서 매 맞은 소가 쓰러지면 밟은 누가 같고 농사는 어떻게 짓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대로 가면 우리가 가까스로 지킨 대한민국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며 “개헌 저지선을 주십시오. 탄핵 저지선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엇보다 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저들의 지난 2년간 입법 폭주는 야당의 폭주를 견제할 여당의 힘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며 “이대로 가면 야당은 다시 한번 폭주하며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대로 가면 야당의 술한 범죄 후보자들은 불체포특권을 방패 삼아 방탄으로 날을 지새울 것”이라며 조국혁신당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 군소정당, 수도권 표심 막판 호소

### 정의당, 서강대 앞·새미래 성수동 찾아 청년·직장인 겨냥 ‘구애전’ 개혁신당, ‘한강벨트’서 지지 호소...조국당, 김포·동작을서 ‘尹심판’

4·10 총선을 이틀 앞둔 8일 군소정당들은 수도권 표심에 막판 호소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비례정당 투표에서 지지도 집중적으로 당부하는 모습이다.

녹색정의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마포구 지역인 서강대 앞 경의선 숲길과 공덕역 일대를 돌며 이 지역 김해미 후보 지원 유세를 했다.

녹색정의당은 수도권 젊은 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최근 지지율 난조로 불거진 ‘0석 위기론’ 막판 뒤집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새로운미래는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와 마포구 동교동 경의선 숲길에서 정당 투표 기호 ‘6번’을 강조하는 ‘청년·직장인과 함께 6번두

잇(6cando it)’ 캠페인을 벌였다.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과 875원’ 발언을 비판하는 ‘과값잡는당 캠페인’도 하고 정권 심판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

광주 광산구에 출마한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새로운미래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유일한 야당”이라며 “비례 투표도 기호 6번 새로운미래를 선택해달라”고 썼다.

개혁신당은 수도권 ‘한강벨트’에 집중했다.

개혁신당 선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뒤 남양주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오후에는 남양주와 구리에 이어 서울 강동구에서 지

지를 호소했다.

전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개혁신당 기호가 7번이라서 적어도 7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경기 김포와 군포, 성남 위례신도시를 돌며 비례 투표 지지를 호소한 뒤 서울 동작을 지역인 송실대 정문에서 이날 유세 일정을 마쳤다.

조국 대표는 김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 서울 편입 정책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출마한 동작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전히 절실하다. 비례대표 9번을 선택해 ‘9를 막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 소병철, 유엔난민기구 관계자 면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은 8일 “지난 4일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한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두 사람은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

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 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 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공감대를 넓히는 ‘Soft Power’ 활동에도 힘쓰다면 외국인 정책의 개방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김진수 기자

## 22대 총선 프리즘

### 박균택, 지역 집중 유세 주력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갑)는 8일 “오늘 오후 2시 광주송정역 앞 민행배 후보, 이탄희 의원과 함께 합동유세를 펼치는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 총력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7시30분 선운지구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영광동사거리 유세, 낮 12시 호남대학교 정문 사거리 유세를 펼쳤다.

오후 5시30분엔 광주공항 사거리 퇴근길 인사로 마무리했다.

박 후보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드러난 만큼 이번 집중 유세 현장에서 정권 탈환을 위한 굳은 의지와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

### 문금주 “농업경제자유특구 지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8일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을 전국 최초의 농업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역을 대한민국 농수축산업 메카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일대를 농업경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으로 국내외 농수축산업 관련 우량 기업을 유치, 농·수·축산업 전후방 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구

상이다.

문 후보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큰 위험 요인이지만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인 농업경제자유특구 추진을 통해 농어촌이 잘 살고,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김재정 기자

### 정준호, 북구 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협약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후보(광주 북구갑)는 8일 “최근 북구 사회적경제연합회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측이 맺은 협약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부합하는 법령 정비 ▲공공 부문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 확대 ▲자활기업 육성·지원 위한 법률 정비 ▲사회적경제 지원 공제 사업 제도 활성화 등이

다.

정 후보는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립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

### 김용재 “민생 살리는 정권 심판” 약속

녹색정의당 김용재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을)는 8일 “민생 살리는 정권 심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민생 공약과 정책이 사라진 정권심판 선거가 되고 있다”며 “고금리·고물가에 지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고택을 함께 하며 민생 현장을 지켜왔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녹색정의당을

모두 선택해 달라”며 “김용재와 녹색정의당을 찍어야 사표가 되지 않고 민생을 살리는 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민생의 당사자인 노동자, 농민 등을 비례후보로 내세운 녹색정의당이야말로 진짜 진보정당, 민생정당이다. 민생을 살리는 정권 심판을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선강 기자

### 이개호 “함평에 골프 특성화 대학 유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는 8일 “함평군의 골프 산업 발전과 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 특성화 대학 유치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함평 골프연습장 재개장에 방문한 이 후보는 “함평군은 골프고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어 유능한 골프 인재들을 발굴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를 더 활성화해 함평군을 우리 골프산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

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연계한 골프교육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골프 특성화대학을 함평에 유치하는 등 함평 골프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 함평을 통해 우리나라 골프산업과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진수 기자

### 국민의힘 광주 8명 후보, 대시민 호소

국민의힘 광주 8명의 후보는 8일 “광주 발전의 대전환을 위해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5·18민주광장 앞에서 합동 유세를 갖고 “이제 광주는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또 “광주에서 국민의힘에 한 석이라도 준다면 광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광주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광주의 현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국비 예산 확보 등 광주의 막힌 곳을 뚫고 광주 발전을 통 크게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 기자